

특별리포트

지평선축제 농악기획공연 첫 선

김제시, 세계무형유산 행사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5천만원 확보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한민족의 열! 농악 기획공연'을 개최하게 되어 대한민국 전통농경문화축제로서의 격에 어울리는 대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었다.

김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의하여 '세계무형유산 행사지원 공모사업'에 신청, 7월 6일 최종 확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한민족의 열! 농악기획공연'이 김제지평선축제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올해 열리는 '한민족의 열! 농악 기획공연'은 축제기간 중 9월 29일부터 9월 30일 양일간 벽골제 문화마당에서 개최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가지정 6대 농악'(진주 삼천포, 평택, 이리, 강릉, 임실 필봉, 구례 잔수)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제농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공연은 김제지평선축제의 컨셉에 맞는 농경문화 대표 프로그램으로의 정례화 차원에서 진행되며, 향후 글로벌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외관광객 및 주



이번 축제에서 '국가지정 6대 농악'과 '김제농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 외국인인과 함께 하는 대농놀이의 장'으로 특별 구성하여 전개된다.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국제친선클럽,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여행사 등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 각종 팸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농악'과 '지평선축제'라는 콘텐츠를 통한 외국인의 한국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한민족의 열이 담긴 소중한 농경문화인 '농악'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한민국 대표축제이자 전통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에서 구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농악이 담고 있는 '신명'과 '흥'이 전세계적 보편정서임을 입증하여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세계적 대농놀이 콘텐츠로서의 농악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대규 김제경찰서장 취임식

김제경찰서(황대규 서장·사진)는 지난 11일 경찰발전위원장과 경주회장, 의경어머니회장 등 초청내빈 7명과 각 과/계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등 경찰서 지휘부는 물론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대 황대규 신임 김제경찰서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새로 부임한 황대규 서장은 취임사에서, "김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김제경찰의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삼아 줄 것"과 "진정성과 성의있는 정신 태도로 근무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황대규 서장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고충과 하소연을 해결하여 시민의 요구에 충족시킴으로써 안정된 치안 확보에 힘써 나가겠다"를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 제275회 임시회가 12일 9일 간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와 함께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오세웅 의장 선출 후 처음 열리는 의회로 제7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비전과 각오를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다.

오세웅 의장은 개회사에서 "일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전반기 의장단과 후원회 의원 구성을 무사히 마무리해 준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황산면 먼저인사하기 캠페인

김제시 황산면(면장 이하영)은 12일 면소재지에서 기관·단체장과 공무원,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 간 서로 소통하고 따뜻한 동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제시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인 '이웃에게 인사하기 운동'은 정다운 이웃, 따뜻한 이웃에게 내가 먼저 인사함으로써 살아있는 김제, 밝고 명랑한 품격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상백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웃사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주민과 주민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전기제품 사용 주의 당부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여름철 습도가 높은 날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김제시에서 발생한 총 329건의 화재 중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10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3%를 차지한다.

전기화재발생은 ▲트래킹 현상(먼지와 수분 등으로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생겨 화재로 이어지는 것) ▲불완전 접촉 ▲전원코드 단락 ▲배선 절연열화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전기제품의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전기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신문협회는 "김생기 정읍시장은 민선 5, 6기에 걸친 지난 6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의지로 시장을 이끌어 시장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지역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생기 정읍시장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

(사)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김생기 시장이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지역신문협회)로부터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을 받았다.

지역신문협회는 "김생기 정읍시장은 민선 5, 6기에 걸친 지난 6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의지로 시장을 이끌어 시장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지역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12일 시장실에서 김진구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북도협의회장으로부터 상장과 메달을 전달 받았다.

시상식은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다.

김 시장은 시민과의 밀착형 소통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과 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에 나서 인근 지자체인 고창, 부안군과의 협업행정을 통해 상생발전을 꾀한 것은 물론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광역 공동화장진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이다. 이 사업은 인근 지자체 간 성공적인 협업행정 추진과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정부 3.0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이들 지자체와 전국 최초로 전

북 서남부 도·농연계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나서 3년(2013~2015) 연속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연계협력사업 및 선도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함께 3대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R&D사업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이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 단지를 조성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되는 등 지역발전과 행정혁신을 이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장질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보건소, 여름철 감염병 예방 '손씻기 시가지 캠페인' 전개

부안군 보건소는 여름철 각종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을 예방하려고 최근 부안읍 시가지에서 '전 국민 손 씻기 시가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고 교육 리플릿 및 스티커,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군 보건소는 여름철 주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려고 감염병 취약지역

사건 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했으며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치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족구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영유아가 많이 모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을 확보하고 이를 접수지

역 등에 지원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 등 여름철에 유행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름 휴가철인 만큼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앞 연못에 연꽃이 풍성하게 피었다.

"연꽃 향기에 취해 보세요"

태인면 피향정 연꽃 만발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앞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다. 지난주부터 만개하기 시작한 연꽃은 내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은은한 향과 아름다운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온 사진작가는 "연꽃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라며 일대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호남 제일의 정자로 널리 알려진 피향정은 원래 정자 앞뒤로 상연지와 하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나 상연지는 1900년대 초 메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는데,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 하여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 곳 연못가를 거닐며 풍월을 읊었다고 전해지는 피향정은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건물은 조선 숙종 때인 1716년 태인현감 유근이 다시 고쳐 지은 것이다.

최고의 아름다운 연꽃단지로 명성을 자랑하던 피향정 연못이 연재부터가 생육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연꽃 개체 수가 줄어 그 아름다움이 다소 빛을 잃었으나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본래의 모습을 찾더니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다.

시는 "피향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홍빛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흥 속에서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김제시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문가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56명의 심사위원이 공약이행 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5개 항목을 5개월간 2차에 걸쳐 평가했으며, 김제시 등 53곳(시 14곳, 군6곳, 구 33곳)이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김제시는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김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농생

명 허브도시 김제,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 다함께 잘사는 김제 등 5개 분야 56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진 공약사업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반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참공약 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동참해 왔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김제시의 핵심사업"이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행정 만족도 제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농기센터는 오디 재배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부안농기센터, 읍·면 현장순회교육

오디수확 후 안전재배 관리위해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디수확 후 안전재배 관리를 위한 읍면 현장순회교육이 12일부터 15일까지 오디 재배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안군은 오디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기반 조성에 전념한 결과 전국 오디 재배 면적의 22%, 전북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오디 주 생산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효자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베리류 재배면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재배관리의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재배방법 개선, 경영합리화, 품종 갱신 등 농가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이번 교육에서 재배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보고 고품질의 오디 안전 생산을 위한 비 기립 하우스 재배, 품종 갱신, 오디 안전 재배지대 설정, 등 오디산업 제2의 도약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